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 결산자료

- 순서 -

- I. 개요
- II. 성과
- III. 참가게스트 및 프레스
- IV. 이벤트 및 행사
- V. 시상
- VI. 아시아영화아카데미(AFA) 결산
- VII. 아시아영화펀드(ACF) 결산
- VIII. 아시안필름마켓 결산

1. 개요

1. 기본 개요

- 기 간 : 2009년 10월 8일~16일
- 70개국 355편(역대 최다편수), 총 803회 상영
- 상영관 : 6개 극장 36개관(총 유효좌석 수 269,332석)
해운대 : 야외상영장(수영만요트경기장 내), 메가박스(해운대점), CGV(센텀시티점),
롯데시네마(센텀시티점)
남포동 : 대영시네마, 씨너스 부산극장

2. 총 관객수 : 173,516명

3. 월드+인터내셔널 프리미어 : 역대 최다

- 월드 프리미어 : 98편 /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 46편

4. 아시안필름마켓

- 세일즈 오피스 : 총 25개국 75개 업체, 45개 오피스
- 총 참가 업체 수 : 42개국 534개 업체
- 총 스크리닝 수 : 10월11일 ~ 13일까지 3일간 43편 50회(마켓 프리미어 40편)

5. 아시아영화아카데미(AFA)

- 참가자 : 16개국 24명
- 교장 : 구로사와 기요시 / 교감 : 박기용
/ 촬영지도교수 : 마흐무드 칼라리 / 연출지도교수 : 호유향

6. 아시아영화펀드(ACF)

- AND 배급지원펀드 신설 : 판권 구매 지원, 배급지원

II. 성과

1. 참가국의 확장

아프리카영화계와의 네트워크 구축, 플래시 포워드상 신설, 할리우드의 스타급 연기자와 감독 초청 등을 통한 부산국제영화제의 영역 확장

2. 미래를 선도하는 영화제

3-D 영화 컨퍼런스와 워크숍, 미니-EAVE 행사 등을 통하여 영화 제작 및 산업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비전을 제시

3. 안정적 행사운영

충분한 사전 리허설과 운영매뉴얼의 체계화로 예년에 비해 훨씬 매끄러워진 영화제 운영을 선보임

4. 마켓의 새로운 도약

온라인마켓 론칭, 행사공간의 집적화, 참가 업체 및 참가자의 증가 등으로 아시아필름마켓은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마련

5. 수준 높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호평

역대 최다 월드 프리미어/인터내셔널 프리미어 상영과 더불어 많은 초청작들이 부산영화제 이후 열리는 해외 유수의 영화제의 초청을 받는 등 호평을 받았음

6. 내·외신과 해외 게스트들로부터 세계 최고의 관객 수준과 시민의식이라는 평가를 받음

III. 참가게스트 및 프레스

- 총 참석인원 8,658명
 - 국내 3,178명
 - 해외 860명
 - 시네필 1,388명
 - 마켓 974명(BIFCOM의 경우, 전시자 등록만 포함)
 - 프레스 2,202명

- ※ 마켓의 경우, 단순 참가(방문)자 제외한 배지 발급자에 한함
- ※ 아시안필름마켓 세일즈오피스 : 25개국 75개 업체 45개 오피스
- BIFCOM 부스 : 15개국 56개 팀

IV. 이벤트 및 행사

- 마스터 클래스 6회
- 핸드 프린팅 2회
- 세미나 14회
- 오픈 토크 3회
- 야외무대 인사 8회
- 아주담담 12회
- 시네마투게더 : 7팀
- 관객과의 대화(GV) : 203회
- 기자회견 : 총 13회
- 개별인터뷰 : 총 188회

V. 시상

1. 뉴 커런츠상

총평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 심사위원단은 올해 뉴커런츠 섹션의 작품들이 매우 풍성하고, 차세대의 유망한 작품들이며, 주제와 표현기법에 있어 대단히 독창적이라고 느꼈다. 모든 영화들이 아시아 영화의 풍요로움과 생명력을 보여줬다. 아시아의 젊은 감독들이 자신의 야망을 보여주었으며, 자신들의 시대를 나타내고 있었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낙관론의 부재였는데 많은 영화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냈다. 이런 면에서, 아시아 영화는 유럽 영화와 닮아 있고, 세계의 어두운 그림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렇더라도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이들 젊은 감독들이 우리에게 특정 메시지를 주려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의미나 저마다의 문명의 가치를 되돌아보도록 하려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배제할 수는 없다. 심사위원들은 여기 함께한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영화산업을 지원하길 바란다. 문화적 다양성은 세계의 평화와 균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수상작 : <킵 오프> 샤우캣 아민 코르키 감독(이라크, 일본)

심사위원단은 만장일치로 <킵 오프>를 선정하였다. 이는 축구장에 난민촌을 이루고 사는 이라크 쿠르드족의 불확실하고 고된 삶을 묘사하는 이 영화의 현실적이고, 예상 외로 시적이며, 거의 초현실주의적이기까지 한 시각에 대한 보상이다. 이 영화의 관점이 어둡고 절망적이라면, 샤우캣 아민 코르키는 또한 우리에게 감독 자신이 속한 민족, 진정성, 투쟁 정신을 위해 살 것이라는 강한 열망을 보여 준다. 이 단순하지만 상상력과 힘으로 가득한 영화에서, 감독은 마을 간 축구경기 준비에 동원되어 고군분투하는 마을의 일상을 묘사한다. <킵 오프>는 우리 심사위원 모두가 재능을 인정한 새로운 감독의 출현을 알려준다.

수상작 : <나는 곤경에 처했다!> 소상민 감독(한국)

<나는 곤경에 처했다!>를 언급하면서, 우리 심사위원들은 젊은 감독의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정하게 되기를 바랐다. 소상민 감독은 활동적인 삶에 진입하길 주저하는 젊은 시인의 방향을 그린 세밀하고 재기발랄하며 깊이 있는 코미디를 우리에게 선사했다. 우리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의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선사하는 기묘하면서도 유쾌하며 파워풀한 매력에 빠졌다. 심사위원단은 자신의 영화 속 캐릭터를 명확히 설정하고, 작품의 톤을 특별하게 만드는 정교한 롱테이크 안에서 스토리를 잘 통제하는 소상민 감독의 연출력에 특히 감동받았다. 감독은 또한 지적이면서도 정제된 대사들에 주목했다. 이런 성숙함은 데뷔작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기에 상을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

특별 언급 : <마닐라의 청춘, 빛과 그림자> 삼페드로(필리핀)

이 작품에 대한 특별 언급은 작품의 대담한 형식 및 내레이션에 대한 것인 동시에 불평등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는 필리핀 젊은이들의 험난한 삶에 주저 없이 접근해 가는 용기에 대한 것이다. 서커스 같은 시나리오에 따라, <마닐라의 청춘, 빛과 그림자>는 몇몇 캐릭터가 이끌어가는 이야기로 곡예를 부린다. 삼페드로 감독은 성 산업을 생존의 수단으로 접근하는데 거칠고 신랄한 그의 영상은 돈과 섹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착취의 관계를 잘 담아냈다. <마닐라의 청춘, 빛과 그림자>는 대단히 기발한 영화이며 동시에 차별이 없는 영화이다. 이 특별언급을 통해 심사위원단은 이 작품의 용기에 대해 감독에게 경의를 표한다.

* 뉴 커런츠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장 : 장 자크 베넥스

- 심사위원 : 김형구, 예심 우스타오글루, 테리 콰, 펜엑 라타나루앙

2. 플래시 포워드상

수상작 : <루퍼트와 에버트> 자이다 베르그로트(핀란드)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텔링, 연기, 연출 등이 조화롭게 잘 구성되어 있고, 여성감독 특유의 섬세함을 잃지 않는 동시에 강한 미장센이 돋보이는 작품. 여러모로 감독의 연출적 잠재력과 역량이 기대되는 작품.

특별 언급 : <미스키키> 호콘 리우(스웨덴, 대만)

작은 영화지만 큰, 많은 이야기를 간결하게 담이낸 연출력이 돋보임. 다국적, 사회적 문제점, 가족간의 갈등, 우정, 복잡한 심리 등을 드라마 구성만으로 잘 표현한 작품. 시나리오, 연기, 연출 등이 잘 어우러진 작품.

* 플래시 포워드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장 : 강수연

- 심사위원 : 마리안 슬롯, 알리사 사이먼, 프레데릭 부아이에

3. 선재상

수상작 : <닿을 수 없는 곳> 김재원(한국)

영화를 심사할 때 선정 기준을 둔 것은 감수성, 창의성, 스토리, 영화의 만들새, 연출력 등을 기준으로 했으며 무엇보다 주안점을 둔 것은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가 있는지 였다.

영화 <닿을 수 없는 곳>은 도시민의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한국인의 정서를 잘 녹여냈다고 할 수 있다. 군 입대를 앞둔 주인공의 가족에 대한 연민과 예민한 감성, 절제된 연기 연출이 돋보였으며 극적인 완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영화의 기법을 넘어 마음을 움직이고 더 나아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수상작 : <월척> 바실 미로네(인도네시아)

영화를 심사할 때 선정 기준을 둔 것은 감수성, 창의성, 스토리, 영화의 만들새, 연출력 등을 기준으로 했으며 무엇보다 주안점을 둔 것은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가 있는지 였다.

영화 <월척>은 멋진 로케이션 속에 뛰어난 감수성과 깔끔한 촬영기법, 지루하지 않은 편집과 리듬감이 돋보였으며 기존의 배우가 아닌 실제 인물들의 감정 연출이 돋보였다고 할 수 있다. 절망 속의 주인공의 감정을 노래로 승화한 독특한 연출

방식도 인상적이었다.

* 선재상 심사위원 : 유지태, 시모유카 루이쁘, 탄 추이무이

4. 피프메세나상

수상작 : <땅의 여자> 권우정(한국)

이 영화는 시골에 살고 있는 세 한국 여성을 꼼꼼히 그린다. 감독의 뛰어난 영화적 감수성과 그들의 속마음, 경제적 문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싸워야 하는 정치적 동기들에 대한 감독의 특별한 이해로, 이 여성들은 큰 화면에 일상의 영웅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영화는 오늘날 한국 농촌생활의 작은 세계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놀랄만한 본질들을 보여주고, 설득적 형태의 다큐멘터리로 영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수상작 : <또 다른 노래> 사바 데완(인도)

한때 유명했던 가수 바란시가 부른 사라질 뻔한 노래가 이 작품에 잘 베어져 있다. 이 옛날 유명가수의 열망은 금새 영원히 없어질 문화에 대한 살아있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다. 영화는 옛날에 대한 단순한 그리움을 넘어서, 여러 가지 문화, 인종, 종교가 같이 어우러졌던 과거를 지우려고 애쓰는 사회에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또 다른 노래"는 문화적, 정치적, 여성주의적 논쟁거리들을 음악적인 우아함이 잘 버무려진 다큐멘터리이다.

* 피프메세나상 심사위원 : 고영재, 도로테 베너, 제인 유

5. 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FIPRECI)

수상작 : <킥 오프> 샤우캣 아민 코르키(이라크)

현 이라크의 다인종적 갈등환경과 이에 처한 고된 삶을 시적, 창의적 방식으로 다루는 한편, 개인적이고 따뜻한 시선을 보여주는 샤우캣 아민 코르키 Shawkat Amin KORKI 감독의 <킥 오프 Kick Off>를 최우수작품으로 결정했다.

* 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 심사위원

이명희, 다비데 카짜로, 보리스라프 안젤리치

6. 아시아 영화진흥기구상(NETPAC)

수상작 : <파주> 박찬욱(한국)

정열적이고 수준 높은 영화제작의 훌륭한 예. 심사위원들은 감독의 시적이고, 감동적인 표현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 비극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접근한 감독의 용기를 지지하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아시아 영화진흥기구상 심사위원 : 강소원, 당낫민, 히로미 아이하라

7. KNN 영화상(관객상)

수상작 : <안녕 할아버지> 장웬리(중국)

VI. 아시아영화아카데미(AFA) 결산

1. 기간 : 2009 년 10 월 1 일~10 월 17 일
2. 장소 : 아르피나, 시네마테크 부산, 동서대학교 녹음실,
버드 클래식 녹음실 및 해운대 로케이션
3. 참가자 : 16 개국 24 명
4. 지도교수진
 - 교장 : 구로사와 기요시
 - 교감 : 박기용
 - 촬영 지도교수 : 마흐무드 칼라리
 - 연출 지도교수 : 호유향
5. 프로그램
 - ① 단편영화제작 및 상영
 - <숲 속의 대결> An Encounter in the Woods / HD / 10min
 - <소녀> A Girl / HD / 10min
 - ② 워크숍 총 4 회
 - ③ 멘토링 총 3 회(총 24 명 1 대 1 멘토링 별도 진행)
 - ④ 졸업생과의 만남 1 회
 - ⑤ 스크리닝 3 회
 - ⑥ 교장 마스터클래스 2 회
6. 장학금 수여
 - ① 뉴욕필름아카데미에서 1 명에 3,000 불 지원
 - ② 테크니컬러 타일랜드에서 1 명에 후반작업 지원

VII. 아시아영화펀드(ACF) 결산

1. AND 배급지원펀드 신설

다큐멘터리의 상영 기회 확보를 위해 <위낭소리>의 이충렬 감독의 기부로 조성된 펀드

- 판권 구매 지원(아시아 다큐멘터리)

당해 연도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 중 우수 아시아 다큐멘터리 2편을 선정, 해당 지원금으로 국내 판권을 확보하여 극장 개봉 추진

- 배급 지원(한국 다큐멘터리)

당해 연도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 중 우수 한국 다큐멘터리 1편을 선정, 1천만원의 배급 지원금 제공

2. AND 배급지원펀드 수상작

① 아시아 다큐멘터리 (2편)

- 아름다운 섬 | 카나 도모코 | 일본
- 비랄의 멋진 세상 | 수라브 사랑기 | 인도&핀란드

② 한국 다큐멘터리 (1편)

- 경계도시 2 | 홍형숙

3. 제14회 영화제 상영 : ACF 지원 총 16편 상영

Ⅷ. 아시안필름마켓 결산

- 세일즈 오피스 : 총 25개국 75개 업체, 45개 오피스
- 총 참가 업체 수 : 42개국 534개 업체
- 총 스크리닝 수 : 10월11일 ~ 13일까지 3일간 43편 50회(마켓 프리미어 40편)

PPP

- 2009년 프로젝트 수 : 총 30편
- 미팅 결과 : 공식 미팅 횟수 총 500여 회

BIFCOM

- 미팅 결과 : 공식 미팅 72회 포함 총 400여 회

시상결과

1. PPP 프로젝트 시상

- 부산상 : 아오야마 신지 <데카당트 자매> / 일본
- 코닥상 : 한재림 <트레이스> / 한국
- 예테보리 영화제 펀드: 에드윈 <동물원에서 온 엽서> / 인도네시아
- CJ엔터테인먼트 어워드: 판 날린 <가끔은 정상인> / 인도, 프랑스
- 롯데 어워드: 손재곤 <이층의 악당> / 한국
- 우리들 상: 양진 <신입 경찰관 이야기> / 홍콩, 중국

2. KPIF(Korean Producers In Focus) 시상

- 프라임 초이스 : <굿바이 어게인> 김영진 PD